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10.04.(제3774)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 송명희 -



기 독 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 임 목 사 권 오 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19주
(세계성찬주일, 군선교주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 반 주 자
※ 입 레 송 . . . 550장(1,3절) . . . 다 같 이
※ 예배의부름 집 레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 경 배 찬 송 23장 다 같 이
※ 공동의 회개기도 다 같 이

내 것을 더 쌓으려는 욕심에 이웃의 필요를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배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 교 독 문 . . . 91번(성찬 1) . . . 다 같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 신 앙 고 백 . . . 사도신경 다 같 이

※ 영 광 송 4장 다 같 이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 도 조영익 장로

주기도영창 635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 봉 헌 송 . . . 211장(1절) . . . 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 묵회·봉헌기도 담임목사

성 찬 예 식 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 집 레 자

구 약 | 잠 언 11:24-25

신 약 | 디모데전서 6:17-19

찬 양 . . 주 이름을 찬양함은 . . 찬 양 대

중 언 권오진 목사

『 영끝의 세상에서

천국의 영끝하기 』

결단의 찬송과 기도 다 같 이

※ 복 의 선 언 담임목사

※ 후 주 반 주 자

※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단추기도회 START ON

-제 5, 7 여선교회 주관 -
오후 2시 사회: 전순남 권사

조용한기도 다 같 이
찬 송 27장 다 같 이
기 도 김지애 권사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13:44 .. 최은주 권사
찬 양 아 멘 찬 양 대
증 언 김희진 목사

『 발에 감추인 보화 』

합 심 기 도 권오진 목사
특 송 회 원 일 동
헌 금 521장 다 같 이
소 식 권오진 목사
축 도 권오진 목사

다음 주 : 목장별 목장모임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8	영 아 부	7
주 일 2 부 예 배	278	유 치 부	13
주일실시간방송예배	49	유 초 등 부	22
목 장 모 임	211	중 · 고 등 부	21
수 요 성 서 연 구	51	청 년 부	17
수요실시간방송예배	9	예 수 소 망 반	27
금 요 성 령 집 회	48	생 명 의 삶	9
금요실시간방송예배	23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707	합 계	116

현 금			
주 일 현 금	1,473,000	감 사 현 금	1,500,000
교회학교현금	185,900	생 일 현 금	130,000
월 정 현 금	3,640,000	선 교 현 금	850,000
십 일 조	15,500,000	추수감사헌금	1,000,000
합 계 24,278,9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금,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화 - 목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요성서연구

10월 7일(수)10:30, 송호준 전도사

어? 성경이 읽히네!
신약 5과 (계속)

본문:요한복음 10장 22-39절 외

- 금 주 기 도 : 김보라 권사
- 다음주기도 : 교역자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10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유임 윤희열	김동수 송대현 오수윤 정미애 한애선 이윤선
안내위원	문정이	
강단헌화		
수납위원	김동수 김명훈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이명근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혼으로 살면 혼나며 산다”

구 약 잠 언 9:10

신 약 마태복음 10:28-31

설 교 : 권 오 진 목사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

인간을 흔히 영혼육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이 세가지를 언급하시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육(body, 헬라어 ‘소마’)은 오감을 가지고 물질세계, 자연세계와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혼(Soul, 헬라어 ‘프쉬케’)은 인간의 지성의, 곧 심리, 감정, 지식, 의지와 같이 나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정신적 영역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마음의 영역이 바로 이 ‘혼’입니다.

그렇다면 영(Spirit, 헬라어 ‘프뉴마’)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영은 나보다 더 큰 절대적 존재,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영역입니다. 내 안의 자아를 넘어 인생의 초월적인 의미와 절대자를 갈망하는 내면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절대자를 인식하고 절대자와 교감하는 이 영역을 우리는 영성(spirituality)라고 부릅니다.

영성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어떤 틀과 같습니다. 영성은 그 틀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지요. 교회를 출석하고 종교활동을 해도 영성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으로만 교회생활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영성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 밖에 있지만 절대자를 인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영성에 대해 무관심하겠

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죽었거나 잠들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결국 육과 혼으로만 살아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영성의 중요성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현대의 심리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공중보건학에서는 인간을 완벽히 이해하고 치유하려면 이 ‘영적 차원’이 중요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정신의학회(APA)의 ‘진단 편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연구할 때 사용하는 가장 표준적이고 권위있는 진단 기준(가이드라인)입니다. 이 편람에는 ‘종교적 또는 영적 문제’라는 공식 진단 코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현대 의학은 인간의 건강을 다룰 때 육체와 마음을 넘어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을 포함한 ‘생물-심리-사회-영적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 연구 기관들이 내놓은 통계 수치를 보면 건강한 영성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질병 사망률 감소 (2016년도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20년 추적 조사): 약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영적 모임에 참석하며 건강한 영성을 유지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33%나 낮았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27% 감소했습니다.

● 수명 연장과 사망률 감소 (2014년도 듀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영성과 의학의 관계를 다룬 3,000건 이상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건강한 영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약 7년에서 최대 14년까지 연장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 뇌 구조의 물리적 변화 (2012년도 컬럼비아 대학교 뇌영상 연구팀): 영성을 중요하게 여겨 삶의 중심을 잡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방어하는 대뇌피질의 두께가 물리적으로 더 두껍게 유지되어 우울증 재발 위험이 최대 90%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학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제가 근무했던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수천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성생활과 신체발달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의 신체발달을 조사해보니, 동일하게 취약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아이들의 신체발달이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학문과 과학조차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고 느끼는 심리적, 정신적 존재(혼)에 머무르지 않으며, 창조주와 연합하는 ‘영적 존재’일 때 신체도, 뇌도, 수명과 삶의 질도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연구결과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과학적인 데이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혼으로 살면 혼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영(Spirit)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 영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혼(Soul)에만 의지한 채,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애쓰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안경을 놓친 채 내 힘과 내 판단(혼)만으로 삶을 주도하려 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작은 시련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혼으로 살면 혼나면 산다”라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혼나다’는, 문자 그대로 ‘혼(魂) + 나다(나가다)’, 즉 “몸에서 혼이 빠져 나가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크나큰 공포나 고통, 벼랑 끝 시련을 만나 정신이 아득해질 때, 혹은 잘못을 저질러 호되게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을 때 우리는 “혼났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Spirit)로 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지식과 감정, 세상적 계산이라는 ‘혼’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 하면,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혼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으로 사는 인생 vs 영으로 사는 인생

그렇다면 혼으로 사는 인생과 영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의하면 크게 세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28절을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혼으로 사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돈, 건강,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인생은 어떠합니까.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의 삶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 9장 10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함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평생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채워지자, 그들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세상 풍랑에 크게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41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 풍랑의 두려움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잠자던 영이 깨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력과 바다의 풍랑은 고작 일시적인 몸만을 해할 뿐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대신, 바다까지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혼으로 사는 인생은 삶의 기준이 세상의 평가와 성과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기 가치가 흔들립니다. 작은 실패에도 깊은 열등감과 무가치함에 빠지거나, 반대로 작은 성공에 교만해져 지나친 자기애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인생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지음 받았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9-31절을 봉독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참새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립니다. 앓사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1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데나리온의 32분의 1입니다. 일당을 10만원이라고 하면 참새 한 마리는 3,1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압니다. 동시에 내 이웃 역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박한 평가 때문에 힘드신가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 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래 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대자의 세심한 돌보심에 대한 확신의 여부가 다릅니다.

혼으로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계산으로 풀어가야 하기에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머리털이 8만개에서 10만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머리털은 하루에도 수백개씩 빠지고 새로 나옵니다. 정확히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세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그 사정을 세밀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것처럼 세밀하게 아시고 자상하게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잠시라도 잊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한 손길을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갑시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감정, 세상적 계산이라는 ‘혼’을 의지하며 살다가 세상의 풍파에 쫓겨 ‘혼나는’ 인생을 이제 끝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의 위협과 풍랑 앞에 떨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타인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수많은 참새보다 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 자신이 소중하듯 내 곁의 이웃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신뢰하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끌어안으려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일어나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권오진 조고은) (손민승 방세미) (남기정 임혜원) (송호준 황영진) (강정훈 황인선) 김미광 (김철희 이후남) 박기순 (박범택 윤옥희) (배운덕 최영숙) (안대형 최미숙) (이수용 인정구) (이평식 김영숙) (이한표 김순영) (조상현 김현숙) (권원자 이소영) 김예린 김은미 김은순 (김정문 유은종) (류기운 송현숙) 류한아 (박영식 정명자) (박재훈 김보라) (백건호 박영옥 백수예) (서정식 이안숙 화은) 성봉구 (신일철 이태영) 신재신 양명숙 우철주 유은애 이경희 (이명렬 최성애) 이성수 이진경 장균복 (장만섭 고순문) (장영재 강정희) 정옥자 (정현호 송미숙) 조예경 (최난주 한애선) 최명순 (최영섭 서인숙) 추화순 홍정순 (김덕환 최현숙) 김연옥 (김영숙 유하동) (김의겸 여혜순) 김진숙 (김진우 한은숙 김카시아) (김치년 홍주연) 류준혁 (박상근 차용분) 박정숙 박주희 (송양근 조혜선) 신상임 (심영관 문미영) 엄영숙 윤인숙 (이남규 이은선) (이능하 김기열) 이명애 (이상환 최선규) 이선주 이은숙 이정임 이한나 이희숙 이혜수 이휘찬 (임현정 권소윤) (조성규 권은정) 차정옥 (최영섭 서인숙)

감 사 헌 금

(김준수 최희성) :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추석 명절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택 윤옥희) :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신중우 김영미) :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대형 최미숙) : 주님! 추석명절 딸 가족, 아들 가족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용 인정구) : 한가위를 맞아 별그리다 묘원에서 추모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한표 김순영) : 언제나 한걸음 앞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정희A :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플 때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웃을 실족케하는 행위하지 않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오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덕환 최현숙)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문기 정건화) :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익 :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의겸 여혜순) :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중에 생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 여호와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셀리나 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종근 이연석) :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옥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정훈 : 건강히 생일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주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박상근 차용분) :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곡이 풍성한 추석명절을 저희 가족과 함께 지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박소자 :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명절과 생일을 자녀손들과 함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자녀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창곤 : 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주영 : 모든 식구 건강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심영관 문미영) : 즐거운 추석을 온 가족이 모여 지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윤자 :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임 : 추석명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보냄을 감사합니다.
 이진숙 :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국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난주 : 자녀들과 추석명절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무 명 : (베루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 일 헌 금 (김의겸 여혜순) 노정훈 박소자

선 교 헌 금 이선주 (임현정 권성호) 총여선교회(선교동역교회 위클리프 태화샘솟는집)

추 수 감 사 헌 금 고광섭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첫단추 기도회** : 오늘은 군선교주일로 김희진 목사(한사랑교회)께서 설교하십니다. 5, 7여선교회 주관으로 드리며, 특송연습이 오전 11시 예배 후,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금요성령집회** : 9일(금) 한글날 연휴로 쉽니다.
- **호산나 찬양대** : 성탄절 칸타타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분은 이한나 권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유선교기금 안내** : 교회 내 환우들을 위한 치유선교기금이 운용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후보간지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임안내

- **아멘 찬양대 연습** : 오늘 오후 12시 50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엠마오가는길(KOWE#125 남)** : 10월 4일(주일) ~ 7일(수)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출산** : 송순호 집사, 유미선 성도께서 1일(목) 득남하셨습니다.
- **감사** : 오늘 점심식사를 후원해 주신 이선균 목사, 차경연 사모께 감사드립니다.
- **결혼** : 강준석 군과 권하영 양(권오진 목사 조고은 사모 1녀)의 결혼식이 10일(토) 미국 보스턴에서 있습니다.
- **교직원 휴가** : 권오진 목사(10/6 ~ 10/13)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10월 중 행사

- **첫단추기도회** : 4일(주일) 오후 2시, 대예배당
- **엠마오 가는길** : 4일(주일)~7일(수), 광림세미나하우스
- **목장모임** : 11일, 25일(주일)
- **총목자모임** : 11일(주일) 오후 2시, 찬양대실
- **여선교회 계삭회** : 13일(화), 연희교회
-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 : 17일(토), 한성고등학교
- **서대문지방 청년 풋살대회** : 17일(토), 웨릭스풋살장
- **유치부 야외예배** : 18일(주일), 주연팍
- **지역나눔 반찬봉사** : 24일(토)
- **목회세미나** : 27일(화), 방주교회

■ 금요성령집회는 한글날 연휴로 쉽니다.

■ 주일아침예배(10월 11일)

대 표 기 도	홍 영 기 장로
---------	----------

■ 주방봉사

- 이번 주 : 4초원
- 다음 주 : 1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